

만주라는 하나의 공간과 한중 두 민족의 마주보기

- 한국과 중국동북 현대문학에 투영된 '타자' 형상 비교 -

김창호*

차례

1. 만주공간과 타자형상의 상호성
2. 디아스포라와 타자인식의 전환
3. '타자' 형상의 다양성
4. '그들' 혹은 '우리' : 한중 양국의 전략적 동맹에 관한 기억

1. 만주공간과 타자형상의 상호성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수탈은 수많은 애국지사, 지식인, 농민으로 하여금 오랜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 탈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한반도와 연접한 만주는 이동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일찍이 우리 선조들의 활동 무대였다는 민족의식과 19세기 중엽부터 이주한 한인들에 의해 이미 정착촌이 형성되었으며 항일운동의 주요 활동지라는 현실인식 때문에 상하이, 베이징 등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한인들이 망명과 유랑과 이주한 공간이었다. 이 시기 만주로 망명하거나 유랑 경험이 있는 한국작가들은 만주와 만주의 중국인을 재현하였으며, 중국작가들 또한 자신의 시야에 포착된 다양한 한국인 형상을 자신의 작품에 투영시켰다.

* 강원대학교 강사

본 연구 ‘한국과 중국 동북¹⁾ 현대문학 중의 타자 형상(Image of the Other) 비교연구’는 20세기 전반기 ‘만주’라는 하나의 공간을 배경으로 한 한국과 중국의 문학작품 중에서 ‘타자’로서의 상대방이 투영된 작품을 비교문학 형상학²⁾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당시 한국인은 만주라는 공간과 만주의 중국인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중국인들은 만주의 한국인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교문학 방법론 중에서 형상학은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제기된 비교적 젊은 분석이론이다. 형상학에서는 ‘타자’ 형상에 대하여 ‘자아’와 관계하는 ‘타자’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아니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로 양분하고 있다. 형상학 이론에서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라는 용어는 이러한 양극화된 시각을 함축하고 있다.³⁾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자기가 속한 사회나 집단, 혹은 계급의 기반을 이루는 신념체계라 할 때, 이는 ‘자아’에 대한 긍정임과 동시에 ‘타자’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다.⁴⁾ 다시 말해서 작품에 나타난 ‘타

1) 일제 침략시기 만주는 다양한 민족이 혼거한 역동적인 지대로써 동아시아의 축소판이었다. 따라서 자국의 입장에 따라 명칭 또한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간도문학(광복전, 혹은 재만문학(오양호, 채훈 등)이라 하고, 일본에서는 만주국 문학하며, 중국에서는 동북문학이라 한다. 동북문학이란 동북출신의 중국인에 의해 창작된 문학으로 만주국에서 창작된 문학과 함께 만주사변을 전후해서 관내로 탈출한 동북출신 작가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만일 중국 동북문학을 만주문학이 한다면 당시 만주국을 구성한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몽골인, 러시아인 등 이른바 ‘五族’에 의해 창작된 문학과 모순관계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의 현재적 시점을 중시하고 용어상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문학의 경우 ‘한국문학’, 혹은 ‘재만문학’이라 칭하고, 중국문학의 경우는 ‘동북문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형상학’ 이론은 아직까지 한국학계에 소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용어에서도 한국화되지 않았다. 이 이론의 중국어로는 ‘Imagologie’인데, 영어로는 ‘Image studies’라 한다. 이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미지 연구’, 혹은 ‘형상학’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이론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形象學’이라 이름한다. 여기서 ‘형상’이란 소설의 구성요소인 일반적인 인물 형상이 아니라 ‘타자’ 형상만으로 한정한다.

3) 陳惇 等 主編, 『比較文學』(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7), 173~174쪽.

4) 왜곡된 ‘자아’의 신념체계는 종종 한 집단에 의한 타 집단의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신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일제의 대동아주어나 게르만 제일주의에 의한

자'를 바라보는 작가의 이데올로기적 형상은 '자아'의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작용을 하며, 동시에 '자아'의 기원이나 특성, 그 역사적 위치에 대한 주도성에 근거하여 '타자'를 판단하려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⁵⁾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속한 사회현실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지금의 사회보다는 보다 나은 세계를 동경하게 되는 심리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자아'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동시에 '타자'에 대해서는 동경의 시각을 보이는 것을 비교문학 형상학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한다. 이는 주로 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데,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민족 문학에 투영된 타자형상의 묘사는 작가가 속한 사회의 집단적 상상력에 기초하거나, 또는 작가의 직간접적인 체험에 바탕을 둔다. 사회의 집단적 상상력은 두 국가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정보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편견일 가능성이 많다. 백의를 즐겨 입고 가무에 능하다는 『山海經』에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한국관이나, 근대 서양인의 눈에 비친 '은자의 나라' 등은 소수의 체험이나 풍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편향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교류가 활발한 경우에도 타자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편견은 역시 존재한다. 안방극장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대기업의 아파트 광고나 자동차 광고는 영국은 '신사의 나라', 혹은 '귀족사회'라는 우리 속에 형성된 영국에 대한 선입관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 또한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적 경험에서 온 사회적 상상력의 영향을 외면할 수는 없다. 외국체험을 하지 않은 많은 작가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상상력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작가가 하나의 인물형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순한 사회적 상상력

파시즘이 증명해주고 있다.

5) 陳惇 等 主編, 『比較文學』(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7), 174쪽.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객관적인 타자에 대한 시각과 생동감 있는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작가가 타자를 접촉할 수 있는 체험의 경로는 다양하다. 구전 혹은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체험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 접촉을 통해 타자를 인식하는 직접체험이 있다. 20세기 전반기 한중 문학가들도 이러한 두 가지 경로를 모두 채용하였는데, 특히 직접체험에 의해 타자형상을 재현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형상을 생동감 있게 창조할 수 있었다.⁶⁾

또 하나, 본 연구에서 진행할 대상은 한국과 중국 두 민족의 문학에 나타난 쌍방향적 타자 형상이다. 이는 비교문학 연구에서 나름의 가치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비교문학 형상학 연구에서는 『17, 18세기 영국문학 중의 중국』이나 『19세기 서방문학 중의 중국형상』 등과 같이 어떤 한 민족 문학작품에 나타난 다른 한 민족의 형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비교문학 형상학 이론을 정립한 유럽학계에서 형상학 연구한 방향에서만 진행한 것은 형상학 연구 자체가 자국문학에 투영된 ‘타자’ 형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제침략기 한국과 중국 관계처럼 공동의 적에 대한 연대의식, 자유로운 국경 출입과 이로 인한 2백여만 명에 달하는 유이민의 발생과 같은 동북아시아의 특수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이유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라는 개념이 두 개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면 형상학 연구도 또한 두 나라의 ‘타자’ 형상을 비교 분석할 때 더욱 명료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학 형상학적 방법을 채용하여 만주리는 하나의 공간에서 생산된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중국인 형상과 중국 동북 현대문학에 나타난 한국인 형상을 비교 분석하여 20세기 전반기 만주리는

6) 중국현대문학의 경우 가장 먼저 한국인을 형상화한 郭沫若의 『牧羊哀話』(1919)는 작가가 단지 금강산 사진첩을 보고 타산지석의 시각에서 조선의 운명을 서술한 것이며, 蔣光慈의 『鴨綠江上』(1927)의 경우는 작가가 러시아 유학시기에 조선인 친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은 단편소설이다. 그러나 이들 초기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가의 직접체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것이다.

하나의 공간에서 창출된 한중 두 민족의 상호 인식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먼저 한중 두 민족의 타자인식이 어떻게 만주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발생하였고, 두 민족의 작가들은 어떻게 이를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본 후, 두 민족의 문학에는 타자형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영되었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각 민족의 타자인식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2. 디아스포라와 타자인식의 전환

1)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만주인식의 변화

20세기 전반기에 창작된 한국 소설 중 중국을 무대로 한 작품은 230여 편이 넘는다.⁷⁾ 그중 김동인의 『감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만주지역이 당연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현대문학도 마찬가지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20세기 전반기 중국문학작품 중에서 한국인을 투영한 소설은 모두 33편이다.⁸⁾

- 7)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중국 유이민소설 연구 중 가장 많은 작품수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저서는 표언복의 『해방전 중국 유이민 소설연구』를 꼽을 수 있다. 저자는 여기서 234편의 소설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만주 200편과 상해 34편이다. 물론 그밖에 베이징 등지를 배경으로 한 작품도 있겠으나 너무 소수이고 문학적 가치 또한 높지 않다하여 연구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물론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내지는 중국인 형상을 주요 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을 것이나, 지역적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 8) 郭沫若, 『牧羊哀話』(1919. 11), 蔣光慈, 『鴨綠江上』(1927. 2), 臺靜農, 『我的隣居』(1928. 11), 巴金, 『髮的故事』(1936. 5), 『火』(제1부)(1940. 12), 戴平萬, 『流浪人』(1929. 1), 『滿洲瑣記』, (1936. 10), 卜乃夫, 『北極風情畫』(1944), 『野獸 野獸 野獸』(1944), 『金色的蛇夜』(1947), 『露西亞之戀』(1947), 『伽耶』(1947), 『狩』(1947), 『奔流』(1947), 『紅魔』(1947), 『龍窟』(1947), 『騎士的哀怨』(1947) (이상 관내작가 6인 17편), 李輝英, 『萬寶山』(1933), 『夏夜』(1937), 『新計劃』(1937), 『古城里的平常事件』(1936), 蕭軍, 『八月的鄉村』(1935), 舒群, 『沒有祖國的孩子』(1936), 『鄰家』(1936), 『海的彼岸』(1940), 端木蕻良, 『大地的海』(1938), 駱賓基, 『邊陲線上』

그 중 한반도가 무대가 된 郭沫若과 蔣光慈의 작품과 이범석 장군을 모델로 한 卜乃夫의 소설과 巴金과 臺靜農의 작품, 그리고 戴平萬의 작품 중 『流浪人』을 제외하면 모두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중 양국의 타자 형상을 투영시킨 작품비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밝혀진 특징은 두 민족의 문학 모두 만주라는 하나의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학 환경은 어떻게 조성된 것일까?

한반도가 반도인 까닭은 만주와 연접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면에서 만주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근대이후 만주는 한민족의 이주와 유랑의 무대였다. 1860년대 함경도 지방의 기근과 수재로 인해 수많은 이주민이 발생한 것이 근대 만주이주사의 시작이다. 이때부터 19세기까지의 경제적 원인에 의한 자발적 이민시기를 첫 번째 시기로 본다면, 일제 강점이 노골화된 20세기 벽두부터 만주사변 이전까지 항일을 위한 정치적 목적과 농토 수탈로 인한 경제적 원인으로 만주를 선택한 기간은 두 번째 시기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인 만주사변이후부터 종전까지는 자발적 이주도 있었으나 대동아 전쟁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이주가 주를 이루었다.⁹⁾ 근 백년의 이주기간 동안 한반도를 벗어나 만주로 이동한 인구는 당시 한국인구 2,500만 명의 1/12에 해당하는 210만 명으로 오늘날 재중동포수와 비슷한 수치이다.

그런데 같은 만주행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만주행의 시기나 작가가

(1939), 『混沌』(1944), 『庄戶人家的孩子』(1945), 王秋螢, 『羔羊』(1939), 小松, 『人絲』(1942), 蔡天心, 『長白山下』(1954), 『江邊上』(1954)(이상 동북작가 8인 16편), 蔡天心的 경우 발표 연대가 해방 이후이나 작가가 원래 동북작가군으로 연안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고 내용 또한 백두산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활약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문학 범주에 포함시켰음. 그밖에 동북작가 郭維城의 『老嶺的春天』(1928)이 『氷花』란 잡지에 게재되었으나 현재는 『東北現代文學史料』에서 제목만 확인할 수 있으며, 동북의 대표적 여류작가 蕭紅의 『生死場』에도 미소하지만 백의를 입고 지나가는 조선인의 형상이 등장함.

9)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최근 진행되고 있는 탈북자 현상은 제4의 한민족 디아스포라이다.

관찰한 대상의 환경에 따라 만주인식은 다양하다. 앞에서 살펴본 제1시기의 경우 이민자가 적고 문학생산의 주체인 작가의 시선이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학 갈래는 다르지만 문학작품에 구현된 만주행은 구한말 의병들의 시문에서 처음 볼 수 있다. 을사보호조약을 전후하여 망명한 애국지사의 경우 만주행의 이유가 자유에 대한 동경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전통사상인 유학의 발생지였다는 모화사상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강원영서지방에서 활동하다 만주행을 선택한 의암 유인석 선생과 습재 이소응 선생이 강계를 건너며 지은 시문에는 이러한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메마른 땅에 살며 대사를 꾸미려나
정세 변해 떠야하네 지체말고 떠야하네
요순의 옛 고장에 공자의 옛 동리에
거기 가서 몸 지키며 다시 때를 기다리리¹⁰⁾

십 년을 한남에서 뜻을 지켜온 사람
나그네로 압록에 이르니 저무는 삼월이라.
조상의 의관 시절의 변화로 지키기 어려워
성인의 땅에서 즐거운 삶을 살리라
북경으로 가는 길 화살처럼 곧고
요동에 구름 걸린 나무 강 건너 이웃했네.
이렇게 떠나움은 옛 것을 구하고자 함인데
어느 날에야 주자가 살던 곳 찾아볼까!¹¹⁾

만주이주자 가운데 초기 정치적 이유로 만주행을 선택한 이들의 만주 인식에는 단순히 지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한자문화권에 속하

10) 『유인석전집』(1), 후룡강조선민족출판사, 416쪽, 김양, 『압록강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료녕민족출판사, 2001, 70쪽에서 재인용.

11) 허준구, 「습재 이소응의 생애」, 습재연구소 편, 『습재 이소응의 생애와 사상』, 춘천 문화원, 58쪽.

면서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문화의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정치적 이유에서 만주행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3·1운동 이후의 지식인의 의식에는 위와 같은 문화 동질성을 찾아볼 수 없다. 다음 인용문은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더욱 가속화된 조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주에 대한 동경의 이미지가 잘 드러난 최서해의 『해돋이』(1924)¹²⁾ 중 교사였던 주인공이 조국을 떠나 만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서술한 부분이다.

김소사가 아들 만수를 따라서 고향을 떠난 것은 경신년 늦은 봄이었다. 삼일 운동이 일어나던 해였다. (중략) 처음에는 나라 나라 하였으나 점점 개성이 눈 뜨고 또 감옥생활에서 문명한 법의 내막을 철저히 체험하고 불합리한 사회 역정에 든 사람들의 고통을 뼈가 저리도록 목격함으로부터는 그의 온 피는 의분에 끓었다. 그 의식이 깊어질수록 무형한 그물에 걸린 고통은 나날이 심하였다. 그 고통이 심할수록 그는 자유로운 천지를 동경하였다. 뜨거운 정열을 자유로 펼 수 있을 천지를 동경하는 마음은 감옥에서 나온 후로 더 깊었다. 그는 그때 강개한 선비들과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동지를 규합하고 단체를 조직하여 천하를 가로보고 시기를 기다리는 무대라고 명성이 뜨르렁하던 상해 시베리아와 북만주를 동경하였다. 남으로 양자강 연안과 북으로 시베리아 눈보라 속에서 많은 쾌한들과 손을 엮걸어 가지고 천하의 풍운을 지정하려 하였다.

「건져라. 뼈가 부서져도 이 백성을 건져라. 그것이 나의 양심의 요구요, 동시에 나의 의무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먹을 쥐는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때 빈곤의 물결은 그에게 점점 굳세게 닥쳐왔다. 이 전같이 교사노릇이나 할까 했으나 전과자라는 패가 붙어서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 (중략) 만수는 드디어 북간도로 가려고 하였다.¹³⁾

12) 이 작품은 1924년에 창작되었으나 발표는 2년 뒤인 1926년 『신민』에 발표되었다.

13) 최학송, 「해돋이」, 민현기 편, 『일제강점기 항일독립투쟁소설 선집』, 계명대학교출

주인공의 눈에 비친 북만주는 항일을 준비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대상이지, 한말 지식인들처럼 전통적 문화의식을 찾고자 하는 공간은 아니다. 이는 1894년 청일전쟁을 전환점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한국인의 중국관이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로 변모되었음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 조공관계로 대표되는 종속적, 혹은 수직적 관계인 한중관계가 수평적, 혹은 평등적 관계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주인공이 만주행을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일제의 경제적 착취 때문이다. 전과자인 주인공에게 일자리는커녕 감시만 더욱 심해지고 삶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간다. 일제하 대부분의 농민들이 남부여대하고 고향을 등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 더 이상 살수 없어 ‘천년을 산 만년을 산’ 꿈에도 잊지 못할 낙동강을 등에 지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성운’(조명희, 『낙동강』), 처참한 빈궁적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김군에게 『탈출기』(최서해)를 쓴 박군, 지주의 착취에 못이겨서 떠나는 『고향』(이기영) 사람들, 십여 대를 살던 고향땅을 동척(東拓)과 식은(殖鐵)에 빼앗기고 만주행을 택한 『삼봉이네 집』(이광수) 등은 일제의 구조적 침탈정책으로 농토와 가옥을 잃고 만주로 떠난 조선농민들의 표본들이다. 이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독립운동의 응지를 펼 수 있는 이념실현의 자유지대, 토지가 기름지고 산림이 울창한 ‘유토피아’ 만주로 향하였다. 최서해의 작품경향이 만주리는 공간은 결국 부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귀결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출발시점에서 만주를 미화시키는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만주를 희망과 동경의 땅으로 보는 시각은 시기와 계층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이후 1930년대 초 ‘만주국’ 건설이 후 ‘만주광(滿洲狂)’의 시기나 1940년대 『만선일보』의 시대에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만주 이주자의 꾸준한 증

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한국인이 갖는 만주행의 이미지에는 단지 동경의 대상이 되는 자유의 땅만은 아니다. 만주체험의 역사가 어느 정도 쌓인 조선사회의 만주 상상력은 ‘홍우적(馬賊)이 우글우글 한다는 되땅(胡地)’¹⁴⁾이요, ‘거친 물결’이 밀려드는 고난의 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엄씨에게는 을순이를 노 참사의 첩으로 주어도 괜찮은 듯한 생각이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서간도로 가서 누구한테 시집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오랑캐 땅에 (엄씨의 관념으로는) 웬걸 사람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고, 또 일생 조밥 덩어리나 깔 수밖에 없을 것이다.¹⁵⁾

자신의 딸을 첩으로 줄지언정 ‘오랑캐 땅’인 만주보다는 고향이 더 좋다는 만주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행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일제하 한반도의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원체 서간도는 가고자 싶어서 가는 길인가, 죽지를 못해서 가는 길이다. 「만리 타국 되오랑캐 사는 땅 거기를 파년한 딸자식을 끌고 가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 만일 집이 있고 파떡을 땅이 있으면야 왜 누가, 무엇하러 그놈의 곳을 꿈에나 가」 이것이 엄씨의 생각이다.¹⁶⁾

만주는 더 이상 이상향이 아니다. 누구나가 가고 싶어 했던 막연한 동경의 시대도 지났다. 그들은 조선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만주로 간 것이다.

서간도로 밀려나갈 철도 자났지마는, 지금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라도 고향에 붙어서 배기려다가 못 배기는 패들인가 보다.¹⁷⁾

‘열다섯 살밖에 아니 된’ 오봉이가 ‘학교예를 가서 선생님들과 아이들

14) 최학송, 「해돋이」, 민천기 편, 『일제강점기 항일독립투쟁소설 선집』, 계명대학교출판사, 52쪽.

15) 이광수, 「삼봉이네 집」, 『혁명가의 아내』, 우신사, 208쪽.

16) 이광수, 「삼봉이네 집」, 『혁명가의 아내』, 우신사, 214쪽.

17) 이광수, 「삼봉이네 집」, 『혁명가의 아내』, 우신사, 204쪽.

에게 서간도로 떠난다는 말을 할 때에’, ‘한껏 부끄럽고 한껏 슬픈’ 까닭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후의 작품에서는 사회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만주행에 대한 논의 보다는 한민족이 만주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가느냐에 서술의 초점이 집중된다.

2) 중국인의 한국 이미지 전환

중국현대문학의 개척자 魯迅은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것을 아까워하는 중국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중국사람 자신은 진실로 전쟁을 좋아하지 않으나 결코 전쟁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싸움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는 타인을 동정하지 않는다. 비록 자기는 생각해도 결코 타인의 자기를 생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일을 논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조선은 원래 우리 속국이었는데’하는 따위의 말투로 말하고 있다. 이런 말투는 듣기만 해도 사람을 몹시 두렵게 한다.¹⁸⁾

중화주의적 향수에서 벗어나 앞으로 닥쳐올 중국의 운명을 경계하라는 계몽의 메시지이다. 1894년은 동아시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다. ‘소중화’였던 한반도는 이제 ‘소유립’을 꿈꾸는 일본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중국인의 한국인식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

20세기 전반기 중국인의 한국인식 변화는 다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이다. 이 시기 중국인의 한국인식은 과거 ‘아까워하는’ 입장에서 한국과 같이 식민지 신세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전환한다. 형상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아직은 자기에 대한 긍정이 강한 반면 타자의 처지에 대해

18)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사, 제241쪽.

서는 부정적인 ‘이데올로기’적 입장 내지는 ‘동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840년 아편전쟁이후 일본을 포함한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홍콩과 대만을 할양함으로써 이미 반식민지의 문턱까지 다다른 중국으로서는 이웃 나라인 한반도의 운명이 결코 강 건너 구경할 일을 아니었다. 당시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을 보면 이러한 정황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지난날 고려가 오늘날 중국의 모습을 비취준 그림자였듯 지금의 고려는 중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¹⁹⁾

중국은 근대 조선의 모습이 마치 현재 자신들의 모습으로 인식하였으며, 더 나아가 일제에 병탄된 조선을 보며 더 이상 제국주의 침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순망치한(辱亡齒寒)적인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중국현대문학 최초로 한국인 형상을 주인공으로 창작한 郭沫若의 『牧羊哀話』(1919) 역시 파리평화회의에서 ‘산동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이에 대한 저항과 경세우언(警世寓言)의 시각에서 금강산에서 숨어 지내는 애국지사에게 대한 상상을 소설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이데올로기’적 시각이 주류인 중에서도 1909년 한국인의 기개와 용맹을 심어준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통하여 ‘유토피아’적 시각이 점차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제2단계는 1919년 3·1운동부터 1931년 ‘만주사변’까지이다. 3·1운동이 같은 해 발생한 중국의 5·4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 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바이다. 전국적 규모의 3·1 항일운동을 보며 중국인들은 한민족의 용기와 역량에 경이의 눈길을 보낸다.

(a) 한일합방 이후 고려라는 나라는 바다에 던져진 바위와 같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에 와서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 바위를 바다 밑바닥

19) 《晨報》, 1919년 5월 9일자, 崔龍水, 《三一運動和五四運動的比較研究》,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編, 《韓國研究論叢》(第7輯), 156쪽에서 재인용.

으로부터 다시 꺼내 원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바치고 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참으로 탄복할 만하다.

- (b) 지금 유럽에서 진행 중인 평화회의는 (1차대전 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 잃은 민족들은 자유를 되찾을 생각을 해야 한다. 약소국의 국민들과 위기를 평화로 전환시켜야 하며, 반드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는 만나기 어렵고 고귀한 것이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고려인은 이 기회를 잘 알아서 사산에서 생으로 뛰어 오르고 있으며, 우리(중국인)은 기회를 등지며 삶에서 죽음을 찾고 있다.²⁰⁾

3·1운동 직후 중국에서 발행된 유력지의 평론에는 위의 두 가지 입장이 담겨져 있다. (a)의 경우 한민족에 대한 ‘동경’을 엿볼 수 있다는 기사이다. 애국지사의 자녀로서 압록강 유역에 피난하고 있는 젊은 남녀가 선대의 대업을 이어 항일 의지를 다진 蔣光慈의 『鴨綠江上』은 (a)의 시각을 서술한 작품이다. 그러나 (b)의 기사문을 보면 한국과 중국은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서로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함께 일어나야 하며, 중국인은 한국인을 본받아 각성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공통된 위기 상황을 맞아 한중 두 민족이 함께 행보를 맞춰야 한다는 동질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세 번째 시기에 이르러 명확해졌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동북지방이 일제의 함락구가 된 이후 한국과 중국은 공동의 적을 맞아 함께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운명공동체가 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재만 한인 사회가 나름의 뿌리를 내리고, 또한 붓으로써 항일을 실천하려는 동북작가들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의 형상을 투영한 작품 또한 수량 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다.

20) 《晨報》 1919년 3월 14일자, 崔龍水, 《三一運動和五四運動的比較研究》,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編, 《韓國研究論叢》(第7輯), 154쪽에서 재인용.

3. ‘타자’ 형상의 다양성

1) 한국문학 중의 만주와 중국인

일제하 식민사회의 구조적 가난을 고발한 최서해의 대표적 이향소설 『탈출기』에는 작가의 분신인 ‘나’가 ‘너무나 절박한 생활에 시들은 몸이 새 힘을 얻을까 하여 새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하여’ 간도로 갈 때 ‘머릿속에 그리었던 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간도는 천부금땅이다. 기름진 땅이 흔하여 어디를 기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쌀도 흔할 것이다. 삼림이 많으니 나무 걱정도 될 것이 없다.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따뜻이 지내자. 그리고 깨끗한 초가나 지어놓고 글도 읽고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쳐서 이상촌을 건설하리라. 이렇게 하면 간도의 황무지를 개척할 수도 있다.²¹⁾

그러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찾아온 만주는 그가 만주에 오기 전에 생각한 것처럼 유토피아만은 아니었다. 정든 고향을 ‘탈출’한 이들을 먼저 맞이한 것은 만주라는 공간이 주는 차디찬 자연환경이다.

오랑캐령을 올라서니 서북으로 쓸려오는 봄 세찬 바람이 어떻게 뺨을 갈기는지.

“에그 춥구나! 여기는 아직도 겨울이로구나.”

어머니는 수레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²²⁾

만주 땅에 들어서면서 피부로 느낀 첫 번째 만주체험은 ‘북극의 얼음 세계나 거쳐 오는 듯한 차디찬’ 바람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에서 는 단순히 기후의 낯설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21) 최서해, 『탈출기』, 『한국단편문학』, 하서출판사, 208~209쪽.

22) 앞의 책, 209쪽.

읽을 수 있다. 소설초입의 만주공간에 대한 배경묘사는 만주에서의 생활이 평탄치만은 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간도에 들어서서 한 달이 못 되어서부터 거친 물결은 우리 세 생령의 앞에 기탄없이 몰려왔고 그의 ‘이상은 물거품을 돌아갔다.’²³⁾

만주에 도착한 조선인에게 만주는 더 이상 희망과 동경의 땅이 아니었다. 낙동강을 떠나 ‘서간도’로 간 성운 부자에게 ‘거기도 또한 편안히 살 수가 없는 곳이었다.’ 그 이유는 매서운 만주바람보다도 더 가혹한 중국인의 등쌀이다.

그 나라의 관헌의 압박, 호인의 횡포, 마적의 등쌀은 여간이 아니었다.²⁴⁾

만주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원주민의 행패와 착취다. 따라서 만주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만주의 중국인 또한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조선 이주민의 눈에 비친 중국인은 ‘악을 쓰며 무슨 큰 싸움이나 하는 듯이 떠들어 대고’, 잘 씻지 않아서 ‘시키면 만인들’, 그래서 ‘만인은 무지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중국인(『삼봉이네 집』, 호시탐탐 조선여인을 넘보는 지주(『이역원혼』) 등 주로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곧 자기에 대한 긍정과 상대에 대한 부정에서 오는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봉이네나 만수네(『해돋이』) 가족의 만주행을 망설이게 하고, 또한 정착을 포기하고 귀향하게 하며(『탈출기』), 심지어 타향에서 생명을 빼앗기는(『홍염』, 『이역원혼』) 첫 번째 조건이 되었다.

물론 중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안수길의

23) 앞의 책, 209쪽.

24) 조명희, 「낙동강」, 『김윤식 교수의 소설특강 1』, 한국문화사, 429쪽.

『벼』에서 조선농민의 논농사 기술을 높이 사고 있는 전임 헌감, 『삼봉이네 집』에서 조선 사람을 동정해서 집을 지어 주거나 양식을 대어 주면서 정착에 도움을 준 왕로야 등이 있으나 한국소설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숫자이다. 이는 타자의 입장에서 기존 질서인 중국인 원주민과 투쟁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한국인의 강인함을 묘사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²⁵⁾

한국문학에서 만주공간이 갖는 의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차디찬 환경과 착취의 갈등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한 제2의 공간으로 자리하였다는 사실이다. 강경애의 『파금』에서 일제의 암흑통치에 불만을 품고 만주로 와서 항일 유격대에 참가하다 죽음을 맞이한 형철, 남편을 잃고 그 대업을 잇기 위해 눈보라를 헤치며 의연히 ‘산’²⁶⁾으로 들어가는 『모자』, 중국인이 등쌀에 못 이겨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늙은 아버지조차 영원히 잃고’ 마침내 ‘남북 만주, 노령, 북경, 상해 등지로 돌아다니며 시종이 일관하게 독립운동에 노력한’ 『낙동강』의 박성운 등은 상대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에 자유로운 만주를 선택하였다. 이는 희망과 저항의 공간으로서의 만주를 형상화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강인한 소망과 민족의 저항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2) 동북문학 중의 한국인

만주사변 이후 중국의 한국관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제에게 동북³

-
- 25) 사실 한국근대문학에 중국인과의 모순을 그린 작품 중에서 민족주의적 시각과 친일적 시각, 혹은 ‘내선일체’적 시각을 구분하기란 쉽지는 않다. 최서해의 경우 경향문학의 대표적 작가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만주는 부정해야 할 공간이요, 만주의 중국인은 한국인을 착취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으며, 국내외를 배경으로 한 김동인의 『감자』와 『붉은 산』의 경우에도 부정적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또한 만주에서의 한중간의 갈등을 일본인의 손을 빌어 해결하고 한 안수길의 『벼』, 장혁주의 『개척』 등도 이러한 의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6) ‘산’이란 이미지는 강경애의 경우뿐만 아니라 동북작가의 손에서도 종종 항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을 빼앗긴 중국은 한국과 같은 운명이 되었다는 자각 속에 한국에 대한 동정이나 경계가 아닌, 공동의 적을 맞아 같이 투쟁해야 한다는 동질적 의식을 갖는다. 아울러 급속도로 늘어난 재만 조선인의 수는 중국문인들에게 커다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재만 한인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동북출신의 작가들은 형상의 유형에서도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수와 표현의 범위에서도 이전의 10년과는 차별성이 뚜렷하였다. 다시 말해 만주사변 이전이 관내작가들이 주로 조선의 애국지사, 귀족, 무정부주의자에 국한된 반면, 동북작가들은 이들 형상 이외에도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도는 유랑인, 농민, 공장노동자나 심지어 사회악으로 치부되는 친일분자나 마약범죄자 등 만주의 다양한 한인 형상을 창조하였다. 또한 만주사변 이전의 작품에 투영된 한인형상이 주로 당시 중국 사회의 집단 상상력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 비판과 부정적 시선이 강한 반면, 이후의 작품에서는 투쟁심이 강한 조선인 혁명전사에는 동경의 시선을, 일제의 세력을 등에 업고 중국인을 무시하는 친일분자에게는 부정적 시선을, 또한 함께 항일을 하거나 반봉건 운동을 전개하는 조선인에게는 동지적 관계를 구현하는 등 동북문학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타자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먼저 한국인 형상 중 동경의 시선이 표현된 이미지는 독립운동가의 형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郭沫若의 작품에서도 독립운동에 투신하다 희생된 애국지사의 형상이 있었으나 이는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중국인민에게 경계의 목소리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지 한국인의 기상에 경의를 표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그러나 蕭軍의 『팔월의 향촌 八月的鄉村』에 나오는 ‘安娜’, 駱賓基의 『변경에서 邊疆線上』의 ‘朝鮮紅黨’, 李輝英의 『만보산 萬寶山』에 나오는 金福 부자 등은 만주의 중국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항일 운동을 전개하는 동지적 입장이거나 오히려 중국인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는 존경받는 인물로 등장한다. 다음은 『팔월의 향촌』에 나오는 만나가 혁명단원들을 향해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농민이 하는 말이다.

그 처녀는 조선 사람이라는데, 믿기지 않아. 조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중국말을 잘 하지? 조선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갓을 쓰잖아? 그런데 저 처녀 전혀 그렇지 않거든.²⁷⁾

중국인 농민에게 항일혁명의 중요성을 계몽시킬 정도로 중국어가 유창한 안나는 문화적으로 일치감을 이룸으로써 국제주의적인 색채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진중의 중국인 혁명가 보다 더 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실하기 때문에 중국인 대원들의 신임이 두텁다.

그 조선처녀는 누가 물어도 친절하게 대답해 줘요. 왕산똥 대감땀 처녀 들하곤 탄판이라니까요. 대원들은 다 그녀를 존경하죠.²⁸⁾

안나의 형상은 단지 그들과 동지적인 입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받아야 할 ‘동경’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변경에서 邊陲線上』에서는 비록 ‘朝鮮紅黨’이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나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 때문에 중국혁명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중국인 劉強은 조선흥당에 연합하기 위해 항일의용군을 데리고 투항한다. 그밖에 50년대 중반에 발표된 『長白山下』은 농촌의 공산당서기기가 중상을 입은 조선인 항일지대장을 숨겨주고 그로부터 혁명의식을 고취되었다는 내용이며, 『江邊上』은 한 소학교 교사가 조선노인의 희생적 도움으로 일제의 포위망을 뚫고 결국 항일연합군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들 작품에는 공동의 적을 맞아 한국과 중국이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국제주의적인 시각이 담겨져 있다.

조선 여자든 아니든, 흰옷을 입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혁명만 알면 됐지!²⁹⁾

27) 蕭軍, 『八月的鄉村』, 『蕭軍代表作』, 華夏出版社, 118쪽.

28) 蕭軍, 『八月的鄉村』, 『蕭軍代表作』, 華夏出版社, 119쪽.

한국농민과 중국농민이 단결하여 지주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지는 『만보산』 등도 국제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 물론 국가간의 공동선을 목표로 한 국제주의 역시 서로의 힘의 균형적 조화가 이루어낸 한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한중간의 협력은 21세기 한중관계를 유지한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고 동북문학에서 모든 한국인이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은 아니다. 동경 내지는 연합의 이미지 이외에도 보통의 조선인, 심지어 반면인 몰도 보인다. 농토를 개간하기 위해 『만보산』에 조선인 노동자들, 『조국이 없는 아이 沒有祖國的孩子』의 조선소년 果里 등은 만주를 와서 떠도는 힘없고 불쌍한 유랑민이며, 『만보산』에서 일제의 힘을 믿고 같은 동포를 착취하는 조선인 감독 형상, 『오래된 마을의 평범한 사건 古城里的平常事件』에서 중국인을 괴롭히는 김씨이나 『여름밤 夏夜』에서 중국인에게 해독을 가하는 ‘고려인’은 만주에서 중국인과 갈등관계 속에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일제침략의 독해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들’ 혹은 ‘우리’

: 한중 양국의 전략적 동맹에 관한 기억

20세기 전반기 한반도와 만주는 비록 시기와 형식은 다르지만 일제 식민지라는 역사적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일제 침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2백만에 가까운 조선인들은 한반도를 떠나 만주로 이주하였으며, 137명의 작가들이 만주를 체험하였다.³⁰⁾ 이는 한중 양국의 문학에

29) 蕭軍, 『八月的鄉村』, 『蕭軍代表作』, 華夏出版社, 119쪽.

30) 김호웅, 『재만조선인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32쪽.

상대방 타자를 투영한 객관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한국문학의 경우 재만 작가에 의한 창작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중국문학 역시 재만한인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만주 출신 작가에 의해서 다양한 한국인 형상이 창조되었는데, 그 수 또한 관내의 작품보다 월등하다. 다시 말해서 양국의 타자형상은 만주공간의 한국인을 공통의 제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만주체험을 한 작가에 의해 주로 창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양국문학에 투영된 상대방 타자형상에는 나름의 차이를 보인다. 한국문학의 경우 만주행 이전에는 동경과 희망의 장소로서의 만주공간이었으나, 막상 만주에 도착한 후에는 낯설고 추운 자연환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동북문학과는 달리 중국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의 중국인은 한국인을 착취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재만 한인의 뿌리내리기를 방해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등장한다. 만주 혹은 만주의 중국인은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닌 것이다.

동북문학의 경우에는 한국문학과는 달리 『沒有祖國的孩子』처럼 주인공이 한국인인 작품도 있으며, 『萬寶山』과 같이 반제반봉건 사상이 결합한 30년대 프로문학 작품도 있다. 전자의 경우 한국인의 강인성 보다는 중국인의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계몽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는 한반도이든 만주이든 일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없었던 한국작가와 다른 처지에 있던 관내에서 활동한 동북작가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동북문학에도 한국문학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인물과 반면적 인물이 모두 등장한다. 그러나 동북문학에는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적 시각이외에도 한중 두 민족 사이에 ‘우리들(—者)’이란 동반자적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일제라는 공동의 적을 함께 대항해야 한다는 국제주의적 동행자 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나’와 ‘나’(自他, 혹은 彼我)의 관계 모색은 철학계의 오래된 화두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J.샤르트르의 경우 자타의

관계가 서로 타인을 부정하는 상극관계로 보았지만, M.부버는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하여 인격적 관계와 비인격적 관계를 구별하여, 전자의 관계에서 타자는 ‘나’에 대한 2인칭인 ‘너’이며, 후자의 관계에서는 타자가 3인칭으로서의 ‘그’라고 생각했다. ‘나’와 ‘그’는 종종 수직적 관계로 만나지만,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너’는 평등적 관계를 이룬다. 이 시기 동북작품에는 부버식의 관계가 모두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주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과 한국인은 서로 대립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항일이라는 공통된 역사의식은 단결하는 농민, 함께 항전하는 동북연군 등 국제주의에 입각한 상생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가 필요한 오늘 중국인에게 일체침략시기 한국과 중국이 동반자적 관계에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동방민족의 자유해방을 위해서
너는 전투하고 있구나!
... (중략) ...
하라바 고개 위에서
송화강 유역에서
압록강 유역에서
고향의 곳곳에서
조선과 동북의 전우들이여
함께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냈다!
흰눈위에 무수한 전우의 선혈을 흘렸구나
친구여, 그 피는 위대하다!³¹⁾

- 「贈朝鮮戰友李斗山先生」(1940. 10) 중에서

최근 동북공정으로 드러난 중국의 새로운 중화주의는 한중 관계의 또

31) 『穆木天詩文集』, 時代文藝出版社, 1985, 159쪽.

거운 감자로 등장하였다. 두 국가간의 평등적 관계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한중간의 평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경제 성장을 포함한 국력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20세기 전반기 한국과 중국동북 문명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간의 상생을 목적으로 두 민족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였다는 기억을 일깨워주고 바로 이것이 21세기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사실을 고취시켜주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본]

1. 작품

- 『우리시대의 한국문학』, 계몽사, 1986.
 『한국소설문학대계』, 동아출판사, 1996.
 『학원한국문학전집』, 학원출판사, 1996.
 『김창길 단편소설선』, 요녕인민출판사, 1982.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1.
 『20세기중국조선족문학사료전집』, 연변인민출판사, 2001.
 이광수, 『혁명가의 아내』, 우신사, 1992.
 소재영 편, 『만주유랑 40년』, 조선일보출판사, 1989.
 민현기 편, 『일제강점기 항일독립투쟁 소설선집』, 계명대학교출판사, 1989.
 민현기 편, 『한국 유이민소설선집』, 계명대학교출판사, 1989.
 김윤식 엮음, 『김윤식 교수의 소설특강 1』, 한국문화사, 2003.
 남궁은 외 엮음, 『한국단편문학』, 허서, 2002.

2. 논저

-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최경호, 『안수길 연구』, 형설출판사, 1994.
 이상경, 『강경애』, 건국대학교 출판사, 1997.
 채훈, 『일제강점기 재만 한국문학연구』, 깊은샘, 1990.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오양호, 『일제 강점기 만주조선인 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1996.
 김열규 등, 『대륙문학 다시읽다』, 대륙연구소출판사, 1992.
 김시준 등, 『한반도와 중국동북3성의 역사문화』, 서울대학교출판사, 1999.
 김호웅, 『재만조선인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립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3.
 윤영천, 『한국의 유민시』, 실천문학사, 1987.
 조규익, 『해방전 만주지역의 우리 시인들과 시문학』, 국학자료원, 1996.

- 표언복, 『해방전 중국 유이민소설 연구』, 한국문화사, 2004.
- 이혜순 외, 『비교문학의 새로운 조명』, 태학사, 2003.
- 장수현 외, 『중국은 왜 한류를 수용하나』, 학고방, 2004.
- 임계순,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2002.
- 김천혜, 『독일문학 속의 한국상과 한국문학 속의 독일상』, 부산대학교출판사, 2002.
- 김재용 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 비평사, 2000.
- 정문길 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 지성사, 1995.
- E. W 사이드 저,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 E. W 사이드 저,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1995.
- 강상중 저, 이경덕·임성모 옮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1997, 이산.
- 피터 차일즈·패트릭 윌리엄스 저,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 고부용 엮음, 『탈식민주의—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3.
-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4.
-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 정문길 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2004.
- 이옥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푸른역사, 2003.
- 진재교 외,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 성균관대학교출판사, 2004.
-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사, 2004.
- 정문길 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2002.
- 전형준,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보는 중국문학』, 서울대학교출판사, 2004.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 동국대학교 출판사, 2003.

3. 논문 및 기타

- 박재우, <中國現代韓人題材小說發展趨勢考(1917~1949)>, 『외국문학연구』, 1996, 제3집.
- 박재우, <中國現代小說속의 韓人形象과 社會文化狀況考(1917~1949)>, 『중국학연구』, 1996, 12.
- 박재우, <中國現代韓人題材小說試探(1917~1949)>, 『중국연구』, 1996, 12.
- 정경주, <20세기초 서간도 망명문학의 일단면>, 『경성대학학보』, 1994.
- 김종호, 『일제강점기 만주 유이민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6.
- 손지봉, 『1920~30년대 한국문학 속에 나타난 상해의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논문, 1990.
- 전성호, 『일제하 중국조선인 소설연구』,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1997.

최일, 『조선현대작가들의 중국체험소설 연구』, 연변대학 석사논문, 1999.

[중문본]

1. 작품

- 張毓茂 主編, 『東北現代文學大系』, 沈陽出版社, 1996.
 『端木蕻良文集』, 北京出版社, 1998.
 『沫若文集』, 1957.
 『蔣光慈文集』, 上海文藝出版社, 1982.
 蔡天心, 『長白山下』, 新文藝出版社, 1954.
 駱賓基, 『邊陲線上』, 吉林人民出版社, 1984.
 駱賓基, 『混沌』,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4,
 中國現代文學館編, 『李輝英代表作』, 華夏出版社, 1998.
 中國現代文學館編, 『蕭軍代表作』, 華夏出版社, 1998.
 中國現代文學館編, 『舒群代表作』, 華夏出版社, 1998.
 臺靜農, 『歷史的兩輪』, 華夏出版社, 1998.
 『穆木天詩文集』, 時代文藝出版社, 1985.

2. 논저

- 馬蹄疾 編, 『李輝英研究資料』, 春風文藝出版社, 1988.
 董興泉, 『舒群研究資料』, 春風文藝出版社, 1988.
 孫景堯 等 主編, 『比較文學』, 高等教育出版社, 1997.
 孟華 主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王向遠, 『比較文學科新論』, 江西教育出版社, 2002.
 楊義, 『中國現代小說史』, 人民文學出版社, 1991.
 東北現代文學史編纂組, 『東北現代文學史』, 沈陽出版社, 1989.
 馮爲群, 李春燕, 『東北淪陷時期文學新論』, 吉林大學出版社, 1991.
 孫邦 主編, 『偽滿文化』, 吉林人民出版社, 1993.
 孫中田 等著, 『鑄鍊下東的繆斯 北淪陷區文學史綱』, 吉林大學出版社, 1998.
 逢增玉, 『黑土地文化與東北作家群』, 湖南教育出版社, 1995.
 錢理群, 『精神的煉獄』, 廣西教育出版社, 1996.
 [日]岡田英樹, 『偽滿洲國文學』, 吉林大學出版社, 2000.
 田和 等著, 『關東文化』, 遼寧教育出版社, 1998.
 楊昭全, 『中韓關係通史』, 吉林人民出版社, 1996.
 楊昭全, 『中朝關係史論文集』, 世界知識出版社, 1988.

- 王霖, 高淑英 主編, 『萬寶山事件』, 吉林人民出版社, 1991.
衣保中, 『撙節移民與東北地域水田開發』, 長春出版社, 1999.
史桂芳, 『“同文同種”的編局』,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姜龍範 等著, 『中朝日關係史』, 黑龍江出版社, 朝鮮民族出版社, 2000.

3. 논문 및 기타

- 朴龍山, <試談中國現代作家筆下的朝鮮愛國者形象>, 『延邊大學學報』, 1985, 第4期.
劉爲民, <中國現代文學與朝鮮>, 『山東大學學報』, 1996, 第3期.
劉洪濤, <對比較文學形象學的幾點思考>, 『北京師範大學學報』, 1999, 第3期.
遼寧省與黑龍江省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東北現代文學史料』, 1980, 第2輯.
遼寧省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東北現代文學研究』, 1982, 第7輯, 1984, 第9輯.
金昌鎬, 『淪陷時期中國東北與韓國文學比較研究』, 東北師範大學, 2003.

■ 국문초록 ■

만주라는 하나의 공간과 한중 두 민족의 마주보기

- 한국과 중국동북 현대문학에 투영된 ‘타자’ 형상 비교 -

김창호

한중 양국은 유교의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양국은 많은 문화적 유사성을 지녀왔으며 서로의 문학에 대한 빈번한 교류는 물론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다. 19세기말 일제강점기 이후 중국과 (특히 동북 지역) 한국의 문학은 역사적, 언어적 맥락에 있어 비슷한 유형에 접어들기에 이른다.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중국 동북 지역문학에 비쳐진 한국의 모습과 한국 문학에 비쳐진 중국 동북지역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과 동북중국 모두의 문학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국 내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동북 지역 내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아래와 같은 변화를 겪는다. 첫째로, 애국 지식인의 모습이 민족적 투사에서 국제적 투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둘째, 한국에 대한 이미지 묘사의 영역이 넓고 깊어졌다. 다음으로, 필자는 한국 작가들(주로 만주국 내의 한국인 작가들)의 정신세계에 투영된 동북중국이라는 이국의 이미지를 엘리트들의 시각에 비쳐진 어두운 도시, 이주 농민들의 희망의 땅, 저항 운동가들의 눈에 비쳐진 독립의 본거지라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보았다.

www.kci.go.kr

주제어 : 중국, 한국, 일제 강점, 만주, 중국 동북 지역문학, 이미지, 이주농민들

■ Abstract ■

A Space called Manchuria and Korean Chinese
Two Nations Confronts
-A Comparative Study about Korea and North East Chinese
Literatures' Images of 'The Other' -

Kim Changho

Because they both belonged to the zone of Confucianism, from the ancient times China and Korea have had many cultural similarities and frequently have exchanged and influenced each other's literature. After Japanese occupation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literature of China (especially in the North East) and Korea were immersed in similar types of historical and linguistic context.

At this paper I compare the images of Korea in North East Chinese literature and the image of North East China in Korean literature. Here I analyze images of 'the Other' in the modern literatures of both North East China and Korea. There were the following changes in the images of Korean in North East China after September 18, 1931, the beginning of the war in Manchuria. First, the images of patriots changed from nationalistic fighters to internationalistic fighters. Second, the boundary of the description of Korean images extended and deepened. Next, I divide images of North East China in the minds of Korean writers mainly Korean writers in Manchuria into three categories. These

are images of the foreign land as the dark city in the eyes of elites, as the place of hope for immigrant peasants, and as the base of independence in the eyes of resistance fighters.

Key words : China, Korea, Japanese occupation, Manchuria, North East Chinese literature, image, immigrant peasants